

데스크 시각



박진현 문화·예향담당국장

요즘 광주시립미술관에 가면 좀처럼 보기 힘든 명작을 만날 수 있다. '실협 영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출품된 세계적 인 작가 고 백남준의 '시스틴 채플'이다. 16세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시스틴 채플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처럼 귀하신 '뽀'이 광주에 오게 된 건 울산시립미술관 덕분이다. 지난해 미디어아트 미술관을 내걸고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이번 광주전에 흔쾌히 빌려줬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부산 매력 알린 '달 토끼'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울산시의 '퐁 큰 지원'이 있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제가 아닌 '소장품 기금제'를 채택해 50억 원을 들여 백남준 작품 세 점을 구입한 것이다. 개관 이전인 2017년부터 5년간 꾸준히 적립한 140억 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년 단위의 회계연도에 따라 재원을 소진하는 여타 공립 미술관과 달리 기금제는 재원을 목돈처럼 적립해 올해 쓰자는 예산은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립미술관은 후발 주자라는 핸디캡에도 컬러티 높은 소장품으로 개관 10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8

굿모닝! 2023년

만 명을 불러들이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들 가운데 외지인의 비율이 30%를 넘어 울산에서 먹고 자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암울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 9월 부산비엔날레를 개최한 부산시는 요즘 글로벌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 약재'로 대회를 연기한 것과 달리 부산비엔날레 조직위는 국내외 비엔날레 중 유일하게 지난 2020년에 이어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마친 부산비엔날레는 최근 영국의 권위 있는 현대미술 전문지 '프리즈'(Frieze)로부터 '2022년도를 빛낸 세계 10대 전시'로 뽑히는 쾌거를 거뒀다. '도시의 인문학, 역사적 특색을 모두 담은 새로운 비엔날레의 모델'이라는 게 선정 이유다.

나아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은 메가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여행 홍보 영상 '달에서 온 이방인, 달 토끼들의 여행'이 대표적인 예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 '비짓 부산'(Visit Busan)을 통해 지난해 11월 23일 첫 선을 보인 부산 관광 홍보 영상 세 편과 티저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3300만 회를 돌파했다. 공개 한 달 만에 이뤄낸 진기록이다. 1분 37초 가량의 짧은 영상에는 달 토끼 듀오가 감천문화마을, 광안대교 등 주요 명소를 누비며 '즐거고, 일하고, 살고 싶은 도시'의 부산을 알린다. 스토일리를 하자면, 여행을 끝낸 두 마리 토끼는 달나라로 컴백하지 않고 부산에서 머물기로 하며 영상은 끝난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로 맞이한 올해는 광주에게 매우 특별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영산강 Y프로젝트'에서부터 여

산 개발 프로젝트,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등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大役事)들이 하나둘씩 첫 삽을 뜨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문화계의 설립은 그 어느 해보다 크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광주비엔날레와 디자

'문화 도시 광주'를 마케팅하라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문화 광주를 띄우는 마케팅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술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 비전은 융사사미로 전략했고, 광주관광재단의 유튜브 채널 '오매나TV'에는 조회수 1만 뷰를 넘는 동영상 거의 없다. 예술 관광의 핵심 콘텐츠인 시립미술관의 컬렉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작품 구입 예산 7억 원으로 56점을 구입하다 보니 광주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작품보다는 절반 이상이 아트페어에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사주는 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개관 30주년이 지났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변변한 아트 상품과 굿즈는 아예 판매도 하지 않는다. 며칠 전 D-100일 맞은 광주비엔날레 역시 국내외 관람객들을 불러들이는 차별화된 프로모션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가보다는 한 도시의 경쟁력이 우선인 시대다. 하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는 국내외 무대에서 문화 도시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자원들은 많은 데 이들을 '깨어' 광주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으로 꽃을 피우는 전략이 미흡한 탓이다. 그런 점에서 2023년은 광주에게 기회가 자 도전의 해다. 모쪼록 올해는 문화로 빛나고 관광으로 흥하는 르네상스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내일이 빛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다리 펀드'

고, 식당에서 빠르게 밥상을 닦으며 카운터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여성의 미소는 당당한 여장부다. 악보를 보지도 못하면서 감각으로 색소폰으로 '마이 웨이'를 불러대는 시각장애인 연주가의 연주는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전율이 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하면서 고객에게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지적장애 청년은 자부심이 넘쳐난다. 설거지와 정소를 하면서 번 돈으로 얼마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지적장애 청년의 효심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영의 안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 CEO가 돈 계산을 계산기가 아닌 암산으로 하면서 수익구조를 따지고, 전략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일흔 개마귀 때 같은 왜선에 맞서 학익진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전투 같다. 장애인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종합 예술과 같다. 장애를 단순한 단점이 아닌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 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부딪치는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장애인들 중에는 기초 수급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생

기초 수급 상당 금액이 감소하거나, 없어서 버린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받는 기초 수급이 비정규직이라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 벌어 보려고 하면 기초 수급 지원금과 각종 복지 서비스가 사라져 버리니 오히려 일하는 것이 손해가 난다. 그래서 상당수 장애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면서 기초 수급 혜택의 감소를 고민하면서 갈등한다.

기초 수급 대상자가 바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초 수급 대상자가 수급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디딤돌이 되는 '사다리 펀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생계 급여가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면, 광주광역시에서 기초 수급을 받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여 일정 급여 이하의 소득을 올릴 때 삭감이 되는 생계 급여만큼 '장애인 일자리 사다리 펀드'를 만들어 1-3년 정도는 보전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여 기초 수급을 탈피하면 포상까지 하여 기초 수급 탈출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한 5년 정도 이 제도를 도입해 보면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다리 펀드'로 지원하는 자금보다, 오히려 기초 수급을 탈출하여 기초 수급 재정에서 절약하는 자금이 더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 만일 광주시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여 기초 수급을 탈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직업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나지 않은 평행선

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에게 목이 터지라 외쳤다. "왜? 이유가 뭐야?" "네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는 되레 뺨, 소리를 질렀다. 차가 떨린다는 듯 몸을 부들거렸다. 아무리 곱씹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떤 것이, 나도 모르는 무엇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직접 물어보고 싶는데 다리가 풀려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도 잉크가 얼질러질까 계속 걱정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육을 하며 앞으로 달려갔다. 모든 일에는 분명 이유가 존재했다. 확실히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알 수 없으니 골머리가 아렸다.

심지어 영혼의 어머니도 나를 힘들게 했다. 마음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걸으며, 다가왔다. "우리 달걀 왜 가져왔어?"

조용하고 싸늘했다. 멍한 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내놓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 아들이 범인으로 나를 지목했다며 욕박질렀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만날 때마다 싸늘하게 눈을 부라렸다. 함께 놀던 아이들이 점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치부를 들린 것처럼 얼골이 빨개졌다.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이제 아이들도 의심하며 슬금슬금 피해 다녔다.

영혼의 어머니는 당연히 꿈속에도 나타났다. 길을 가로막고 입을 꼭 다문 채 두 손을 내밀며 달려들었다. "달걀, 달걀, 달걀달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마음이 점점 혼란스러웠다. 마침내 진짜로 내가 훔치지 않았을까, 무의식중에 몸이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주위 아이들도 모두 내가 훔쳤다고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일어났다. 이제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납골당 제례 의식을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었다. 옆에 앉은 영혼에게 조용히 물었다. "근데 어머니는 왜 안 오셨어?" "그녀 나를 명하니 바라보았다. "물렸어? 어머니는 작년 가을에 다른 세상으로 가셨어." 납골당 앞마당은 벽이 있는데도 여전히 바람이 세졌다. 제례 의식을 마친 후라 다들 배가 고파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정신없이 바빴다. 나도 허겁지겁 밥을 뜨고 앞에 놓인 술을 들이켰다. 식사하는 영혼의 얼굴에도 세월의 낙서처럼 주름이 가로로 그려져 있었다. 바쁘다며 일어서는 그를 따라나섰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 것을 해결해야 했다.

"어렸을 때 자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는 잠깐 어리둥절했다. 금방 무순 말인지 알아차리고 정색하며 말했다. "고인인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냐. 자네는 아직도 어릴 때와 변한 것이 없군." 그는 말을 마치자 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엉거주춤 한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결국 문제는 나 자신이란 말인가? 납골당 언덕배기를 가르는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있었다.

은펜칼럼



류동훈 (사)시민행복발견소 소장

'내일이 빛나는 광주' 강기정 시장의 광주시정 슬로건이다. 로고에는 내일 사이에 별이 날아가는 모습까지 표현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참 잘 만든 슬로건이다. '내일'이 '나의 일'과 미래를 의미하는 '내일'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빛고를 광주의 상징성을 담은 '빛나'는 을 담았다.

다시 말해, 나의 일자리가 행복하게 잘 돌아갈 때 나의 미래도 광주의 미래도 빛난다는 뜻일 것이다. 일자리는 개인의 일상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일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각별할 것이다.

요즘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생각은 장애인들은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찾아갈 때 무척 기뻐한다는 것이다. 새벽 배송을 하면서 수화로 대화를 나누며 근로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동작으로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한 집안의 가장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다. 다친 손은 호주머니에 넣어 두

기고



이중섭 소설가

매년 사월 첫째 토요일은 조상의 제례 의식을 치르는 날이다. 전날부터 고향을 떠나 사는 후손들이 마을로 모여든다. 언덕배기에 자리한 납골당에 삼백여 조상을 모신다. 제례 날은 사월인데도 바람이 세다. 올해도 어김없이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제례 중에 어릴 적 친구 영훈이 눈에 띄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 해도 참석하지 않았다. 영훈을 생각하면 멀리 바닷가 마을로 이사한 기억과 먼 소제지로 되돌아왔던 기억이 뒤섞였다. 그의 집에는 폐지와 고철 그리고 장난감들이 쌓여 있어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그는 나이가 든 후에도 꿈속에 나타나 나를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었다. 영훈이 오더니 냅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잉크병을 들고 튀었다. 두 경이 열린 채였다. 차가 쌍쌍 달리는 도로를 무단 횡단해 반대편으로 도망갔다. 뜨거운 아스팔트 길 맞은편에서 그는 무작정 앞으로 달려갔다. 나는 이쪽에서 그를 쫓아갔다. 돌 사이에 굵은 직선이 죽 뻗어 있었다. 길은 끝없는 평행선이었다. 꿈속인 줄 알면서도 잉크가 쏟아질까 조마조마했다. 영훈의 얼굴은 빨갰다. 더위 때문인지 화

社說

다시 느는 물 사용량...영업장 절수 대책 강화를

기록적 폭설에도 광주의 식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3월 말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상가상으로 줄어들던 시민들의 물 사용량을 절수행 변기(1회 사용 수량 12 l)를 절수형 변기(4~6 l)로 교체하거나 손 씻기지를 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북댐 저수율은 지난달 1일 30.13%에서 하루 평균 0.25%씩 감소하더니 한 달 만인 3일 현재 25.29%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100여 일 후인 오는 3월 말까지는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반 가정의 절수 실천은 미흡한 수준이다. 제한 급수를 막으려면 하루 평균 수도물 사용량 49만 톤의 20%인 10만 톤 정도를 줄여야 한다. 한데 지난달에는 5만 톤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는 3만여 톤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절수'를 달성하려면 사위 시간 줄이기·양치컵 사용·변기 속 벽돌

넣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과 함께 절수 기기 사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가정용 변기(1회 사용 수량 12 l)를 절수형 변기(4~6 l)로 교체하거나 손 씻기지를 하는 데 필요한 물의 10%인 10 l 면 가능한 식기 세척기를 보급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하루 30%가량을 절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만 5000여 개에 이르는 광주 지역 카페와 식당 등의 절수 참여도 절실하다. 과거 극심한 가뭄을 겪은 다른 지역처럼 물 소비가 많은 수영장·목욕탕·세탁장 등에 손실 보상을 전제로 주 1-2회 휴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니라 물 절약 기기 및 설비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절수 조례'를 제정해 효율적인 물 이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잇단 인명 사고 '다이빙 풀' 안전 요원 배치해야

수심 5m 깊이의 '다이빙 풀'에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재발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실내 수영장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산소통 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스포츠) 연습을 하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뇌사 상태로 투병하다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5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시립 실내 수영장 다이빙 풀에서 스낵 스쿠버 관련 연습을 하던 30대 여성이 숨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수상 안전 요원을 감시탑에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반면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 다이빙 풀은 안전 요원 배치 기준 자체가 없고, 사업자 준수 사항으로 '수중 레저 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만 제시하고 있다.

월계동 다이빙 풀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 셈이다. 현행법으로는 다이빙 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위탁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다이빙 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안전 요원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잠수와 스낵스쿠버,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강습생들이 다이빙 풀에서 안전하게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복권 소식에 세말이 떠들썩했다. 정치권 안팎은 물론 경제계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번 특사 대상은 '민생·경제'가 제외된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 사범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사면(赦免)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권이다. 헌법 제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사면

있거나 명절, 그리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 사면령을 내렸다. 임금과 국가가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잘못된 일은 반성하며 백성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한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이번 특사 과정에서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특사 대상에는 '적폐'로 불려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세력 등이 대거 포함되는 등 여론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둔 포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불과 몇 년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 농단 수사

를 지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들을 사면해 준 것은 자기당착이고, 자기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왔다. 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사면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사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 속 사면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등장해 고려·조선시대까지 등장한다. 임금의 즉위 등 나라에 큰 경사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면은 사면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사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를 계기로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